

第13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2月13日(木)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3年度弘報企劃官所管業務報告
2. 2003年度代辯人所管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2003年度弘報企劃官所管業務報告 2面
2. 2003年度代辯人所管業務報告 31面

(14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基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어 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첫날은 8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는 실질적이면서 핵심 있는 위원회 활

동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5일자로 공보관 직제에서 개편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年度弘報企劃官所管業務報告

○委員長 金基星 의사일정 제1항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규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안녕하세요? 홍보 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저희가 직제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를 상임위원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으로 분리되기 전까지의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은 세계 인류도시를 향한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서울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로 시민화합과 친근한 서울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시정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파악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컨텐츠의 개발과 보급화로 대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 직원은 이러한 소관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홍보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이석화, 마케팅담당관 김병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올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홍보기획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요점을 주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계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金貴煥 委員 김귀환 위원입니다.

인원 68명 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담당관님이 준비해 주시고 조금 이따 대답을 해 주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 중에서 나라별로 여행자 숫자 파악해 놓으신 숫자개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몇 명, 일본과 중국 몇 명 이렇게 혹시 분류돼 있는 여행자 숫자 나온 수치 있습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 소관일 텐데 자료는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라별로 그 통계는 있을 것입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지금 저희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저희가 영문, 일어, 중국어…….

○金貴煥 委員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주세요.

준비하셨다가 조금 이따 대답해 주세요. 68명 공무원 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가 조금 이따 대답해 달라고요.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38억 2,800만원이죠? 서울을 홍보해 주는 예산이 38억 맞죠? 맨 앞쪽에 있잖아요38억이라고? 1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38억은 일반예산이고요.

○金貴煥 委員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108억 5,900만원입니다.

○金貴煥 委員 100억이 넘는 예산이 홍보하는데 적다는 생각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金貴煥 委員 그런 느낌은 안 받아보셨냐고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저희가 예산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캐피에서 할 수 있는 정도.

○金貴煥 委員 이 홍보라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상대방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 이것도 홍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도 서울의 홍보계획을 잡은 이 유인물은, 대한민국 사람이 수도서울을 모르는 사람 없고 수도서울에 안 와 보

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맨 나중에 홍보사절단 해서 국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국내에서 움직이는 홍보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 안에 있는 수도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과연 써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속의 수도서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국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국내적으로 홍보는 과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 보세요. 생각 개념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인지 기획관님이 저와 틀리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말씀 듣고 나중에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저 개인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수도 서울을 홍보하기보다는 제가 만약 기획관님으로 있다면 국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기획관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라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수도 서울을 아무리 홍보해 봐야 수도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인구가 많고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따지고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

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수도 서울을 이렇게 홍보를 해요? 좀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홍보,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홍보팀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도 모르고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 나라에 여행을 많이 오는지 숫자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좀더 큰 바운더링 안에서 계획을 잡아야만 올바른 수도 서울에 대한 홍보개념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위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말씀을 할 적에는, 간단히 예를 들게요. 길을 물을 적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웃음을 잃지 말고 부드러운 제스처로서 길을 안내해 주라고 누군가는 어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로 물어보든 일본어로 물어보든 영어로 물어보든 지금 이 물어보는 사람이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말 내용을 몰라요. 말 내용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자연스러운 웃음과 부드러운 몸매로, 112, 114로 물어보면 뭐가 연락되고 뭐가 연락된다는 것 다 되죠? 이러한 어떠한 전화를 통해서 즉석에서 여행오신 그 양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환국 전화가 118이 되었든 116이 되었든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는데 길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것인지 서울시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고 물어보는 것인지 말 내용도 모르겠고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깐 118을 누르게 되면 교환하는 아가씨가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나라대로 교환이 있어서 연결시켜 줬을 때 자연스럽게 시청을 물었을 때 시청을 찾아오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계획을 하실 적에는 국내에서 국내 서울 뭐하러 홍보합니까? 사람이 모이면 육지로 오고 뭐는 제주도로 가라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수도 서울로 오는데 뭐하러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요? 국외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작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 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영상물이 띄워진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작년 8월에 의회 일로 부의장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어요. 저녁에 심심해서 채널을 돌리다보니까 우리 나라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아리랑방송국이 나오는데 그 방송에 불고기인가 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문화 화면이 두 번 떴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텔레비전을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수도 서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영상물은 전혀 뜨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양식

문화인가 외국에 있는 양식문화인가 모를 정도로 다른 영
상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홍보를 하든 서울시의 홍보
를 하든 여행자가 수도 서울을 많이 찾아와서 달러를 벌
어들일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자
기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관광문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100억이 넘는 예산을 국내홍보를 하기 위해
서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외국어를
알 수 있는 공무원 숫자 개념과 예산을 물어보는 과정에
서 뜻을 잘 연결시켜 보세요, 국외홍보하고 어떠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환국, 118이 되었던 좋은
번호를 선정해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휴대폰을 꺼내서 연
결시켜 줄 수는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들어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영어
가 4명, 일어 2명, 중국어 2명이 전문직으로 있고요, 국·
과장 중에는 유학도 갔다온 분도 있고…….

○金貴煥 委員 그런 얘기하지 말고 숫자만 얘기해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8명 정도가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화,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피커폰이라고 해서 택시에서 통역서비스를…….

○金貴煥 委員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4, 112는 국민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18은 외국인에게 안내를 해 주는 국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 자체를 홍보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사실 제 자신이 모른단 말이지요. 전화를 자연스럽게 118로 걸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118국이 있다는 자체를 홍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뭐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나라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영상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면 설악산 가을단풍이 담겨 있는 사진이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절경을 이루는 절벽에 빨간 단풍이 서 있는 그런 사진영상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포인트 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에서도 수도 서울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찾아볼 수가 많이 있고, 옆에 있는 덕수궁 수문장들의 늙은 모습, 교환하는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문화가 섞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국내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국외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하게 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업무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외홍보도 일부 해야 되고…….

○金貴煥 委員 일부가 아니고 많이 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弘報企劃官 姜升圭 국내홍보도 그렇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서울시나 서울시 시책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홍보도 필요한데…….

○金貴煥 委員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소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이 덕수궁을 오면 서울시에서 볼펜을 주고 모자를 나누어준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왜 합니까? 서울시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볼펜을 사주고 모자를 사주고 그래요?

봐요. 외국으로 홍보해서 단 1달러라도 벌어들이세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라고.

○弘報企劃官 姜升圭 좋으신 지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夫斗完 委員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2년도의 업무보고를 죽 비교해 보니까 공보관에서 홍보기획관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서울홍보를 위해서 꽤나 애쓰는 흔적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민원이라든지 시책을 발표하는 것

인데 우리 김귀환 위원님 말씀은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까지 내용은 좋은데 계획은 좋은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 해석할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홍보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요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주 공감하는 말씀을 김귀환 위원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특히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서울이야기수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진솔하게 끌어내야 할 얘기가 무엇인지, 서울을 표현해서 하이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계획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할 때는 방향 하나 하나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관 이런 데 가보면 해외에서 오시든지 아니면 일반 내국인이든 둘러보고 나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가면 카탈로그 조그마한 것, 도록 조그마한 것 갖고 가는데 어제도 문화국 할 때 관광 쪽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만한 큰 재떨이 만한 큰 도장 만들어서 홍보실 왔다가면, 어디 왔다 가면 도장을 어딘가 찍어갈 수 있도록,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많죠. 그런 것을 찍어 가면 어떤 포만감이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도장찍고 가면. 이러한 배지보다 그것이 더 수십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지 하나 줘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어떤 징표로

서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홍보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영상물과 연계해서 관광과 하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 국내홍보가 서울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입성에서부터 서울에 와서는 어떤 맛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이브랜드는 정말 우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준다면 서울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축제 때 같이 홍보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통문화라든지 민원이 필요로 하는 문화 쪽에 아직도 홍보가 일반 주민들한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쇄매체의 비용보다는 방송영상매체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 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우리 홍보기획관계서는 인쇄매체는 나름대로 독특한 재주를 갖고 계신데 영상 쪽에도 그것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질문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오늘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 좋으신 것을 제안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李康一 委員 이강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예년에 비해서 진일보한 그런 홍보방법들이 나온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뿌듯합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으로 바뀐 거죠?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서울을 잘 홍보해 내는 거죠? 잘 팔아야 내는 거죠?

○弘報企劃官 姜升圭 네.

○李康一 委員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7페이지에 보면 하이서울 브랜드를 종합마케팅 하겠습니다 하고 박스 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큰 도시고 공동체의식이 부족해서 서울을 사랑하는 Lovely Seoul을 만들겠다는 것이 내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뒤에 Friendly Seoul 하고 High Seoul은 아마 외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전체적인 계획을 죽 보고 뭔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서울시를 홍보해 내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래요.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고유한 상품을 홍보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와있는 기획들이 너무 스팟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주 대단하게 센세이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세계사이버게임대회 유치 같은 것은 사이버게임대회가 옛날만큼, 열기는 많이 식어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이러한 게임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든 어떤 것으로 해서 하이서울을 노출시키는 데만 만족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상품화 된다면 이 상품 자체를 서울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서울하면 세계사이버게임대회가 열리고 서울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스포츠구단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연계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단지 지원금 주고 하이서울을 노출시키는, 노출빈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홍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만 많이 시행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죠.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네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유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서울을 고급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잘 구별해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弘報企劃官 姜升圭 네.

○李康一 委員 어떠한 계획인지 계획 자체를 잘 실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더 하지 말고 지금

계획 세운 것을 그것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崔桂洛 우리 이강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잠깐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으신 지적이시라 사실 저희도 그 얘기를 하다보면 브랜드 노출하는 데 굉장히 치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너무 저희한테 빠져리게 다가오고요.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인천공항에, 저희들 사실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인데 아직 액션을 못 취했는데 서울에 안 있지만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뭐가 없다는 지적들을 몇 군데서 들었어요. 이 부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明淑 委員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일 위원님께서 한 부분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이서울브랜드 종합마케팅 해서 사랑스러운 친근한 일류로 향하는 이런 이미지 구축, 저는 이것을 얼핏 볼 때 상당히 너무 상징적인 의미

그 외에 그 어떤 실리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정말 없다 그런 맥락과 아울러서 아까 이강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하이서울 브랜드 이미지를 왜 마케팅 하느냐 라고 고민을 해 본다면 왜 마케팅 하느냐, 그럼 어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상징적인 의미, 이 브랜드 이미지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잡아서 실질적인 어떤 도시의 위상을 높일 뿐더러 어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면과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면이 상당히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가닥을 잡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마케팅으로 인해서 적어도 많은 도시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쇠퇴 일로를 겪었던 도시들이 많이 융성해지고 다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하는 그런 일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불란서의 아비뇽이라든가 영국의 애딘버러 같은 그런 데 하면 예술의 도시 딱 감이 오게, 오스트리아 빈 꿈의 도시, 정말 꿈속을 헤맬 만큼 몽롱함이 기대되는 곳,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이 연상될 만큼 딱 한마디로 필이 나와야 되는데 하이서울 그러면 왠지 짧고 영문이 섞여 있어서 세련된 느낌도 들고 한마디로 외치기 좋고 이런 느낌은 오는데 하이서울 아, 무엇이더라? 그냥 하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 외에 뭔가 연결되는 어떤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유무형의 자산과 연결고리를 매치시켜서 우리의 실리적인 그 어떤 것을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하이브랜드 마케팅의 정체성 부분을 김귀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 대내적인 홍보에 연연하지 말고 사실 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해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실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많이 다시 원초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를 보면 1과 2담당관 이렇게 돼서 68명의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홍보협의회가 있고 브랜드자문단이 있고 한데 이 시정홍보 부서를 민간위탁경영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요. 이렇게 많은 인력이 매달려 있는데 사실 홍보 부분은 상당히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 외부에 많이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반면에 브랜드자문단에게 좀더 무게를 실어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많은 인력이 시정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좀 들려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차피 이 부분은 외부컨설팅을 많이 받는데 고민을 해 줬으면,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1차적으로 지적하신 이강일 위원

님과 의견을 같이 하신 것 너무도 지당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 저희가 왜 브랜드를 하느냐 그냥 이미지 해서 노출빈도, 그것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목표가 있는 것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잡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구체적인 알맹이들을 만들어 내냐 이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지적하신 홍보기획관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민간위탁 부분들을 모색해 볼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해 7·8월 경에 홍보협력회사, 홍보관련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업소나 이렇게 개념이 되고 이런다 해서 검토단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민간의 크리에이티브한 면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그것도 우리 사업소처럼 관료화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검토단계에서 무산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주 필요성은 큼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영상이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인터넷이든지 일반직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필요성은 굉장히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하고 이렇게 딱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면으로 계속 전문인력들이 순환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관이 개입해서 어떤 뭘 만들어 놓으면 관료화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떠냐면 저희가 그래서 전문직,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0% 정도.

○金明淑 委員 계약직은 몇 년 계약이에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저기가 없으면 연장되는데 그것도 관료화 된다고 지금 우려를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전문직, 계약직이 1년마다 해서 아웃될 수 있고 새로 리뉴얼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도 법원에 소송이 붙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없다고 파이어가 됐죠. 파이어 된 것도 아니지 계약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홍보망 운영건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도 보면 인터넷 홍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 증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광판 홍보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서울시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모색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올해 심도 있게?

○弘報企劃官 姜升圭 저희가 연구과제로 그것을 예산이

잡혀 있어서, 모바일 홍보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업체 메인트렌스 업체하고 리뉴얼하고 이런 업체는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구 예산 주변에 있는 것하고 해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金明淑 委員 그래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든가 대표벨소리 이런 것들 개발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시스템구축 여러 가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이것을 한번 구축하면 모바일서비스팀이 전문으로 있어야만 가동될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까 모니터링을 모바일을 이용한 여론조사 같은 것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구태의연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로 꼭 찬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여론조사 때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서울시장이 아침에 모닝콜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컬러링서비스 같은 것 번거롭겠지만 잘 이번에 가미해서 되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弘報企劃官 姜升圭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리고 서비스에 옵션으로 이런 것 많잖아요. 범칙금서비스라든가 민원신고 전화메시지로 할 수 있는 것, 정류장 알림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 좀 참고로하시고, 이상입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鍾和 委員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요, 저는 비슷하진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다른 각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종합마케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마케팅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들 죽 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서울이 수도가 된 지가 60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네임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브랜드네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타깃 설정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시켜나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것 이해는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세계사이버게임대회 유치할 하게 되면 해외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는 타깃이 일정하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타깃이 어디냐 하는 것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거

기에 맞춰서 비중을 뒤서, 그러니까 1순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2순위에 그 다음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매트릭스를 놓고 타깃 설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깃들을 분명히 해서 내부실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해서 보강해서 타깃 어디언스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야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타깃을 청소년들로 잡았다고 했을 때에는 IT서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서울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알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金明淑 委員 이제까지 써오던 CI 있잖아요, 해와 산과 강을 상징하는. 그것은 어떻게 폐기되는 것입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아닙니다. 그것은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로고는 기존의 해와 산과 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 CI입니다.

○金明淑 委員 그것은 거의 영구적인…….

○弘報企劃官 姜升圭 아니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서울이라는 것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도시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존 CI, 해와 산과 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비슷한 유형이 디자인이 나와요. 최근에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뉴질랜드의 연구소가 아주 유사합니다. 하여튼 일본 것하고도 유사하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金明淑 委員 그래서 CI는 한번 정해진 것은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매년 바꾸고 이런 것은 CI가 아닐 테고요. 일정 정도 지났을 때 리뉴얼 하는 것은 기업들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CI를 리뉴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金明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一 委員 제가 약간 늦게 와서 제안을 하려고 해

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원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메일을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저희가 이메일 푸시 서비스라고 해서 서울의 시정주요뉴스를 희망자한테, 희망자가 5,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5,000명 정도한테 계속 이메일 푸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B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안하고 희망하는 자 위주로 합니다.

○李康一 委員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강제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좀 됩니다. 스팸메일 성격이니까요.

○李康一 委員 일단은 그쪽에 제안을 먼저 해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메일을 줄 테니까 받을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메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고지 정도보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을 때 베너핏이 좀 있습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이벤트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李康一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나면 일종의 정보에는 베너핏이 좀 담겨 있어야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줄 때 베너핏을 실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요.

또 한 가지 사이버게임 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하는 것을 몇 가지 봤는데 그 안에 아바타게임이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이 서울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시 시내라는 것 아십니까?

○弘報企劃官 姜升圭 버추얼서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康一 委員 버추얼서울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용으로 하고 있는 아바타게임 자체가 그 게임의 장이 서울이에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그 게임이 어디 한게임입니까?

○李康一 委員 게임은 나중에 생각날 때 다시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냐면 대학로나 강남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이 일어나요. 그런데 서울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사이버머니는 아니더라도 베너핏을 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업체와 제휴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착안을 해 주십시오.

○弘報企劃官 姜升圭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그런 업체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로…….

○李康一 委員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基星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夫斗完 委員 아까 오늘 모든 것이 4시 안에 끝나야 한다고 해서 줄였었는데, 제가 보니까 영상물 제작이죠, 주간시정 홍보물. 이것이 기존 하고 있는 PD라든지 저번에 했던 MBC프로덕션에 물어봤더니 도대체 그 가격으로 자기네가 질 좋게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 촬영하는 것 죽 보러다니면 6mm 갖고 다니고 아니면 와이드한 부분을 찍기 위해서 베타ENG 갖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명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화면구성도 일차적으로 그렇고, 또 하이서울을 표현할 만한 CG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그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될까 말까 하고, 그리고 좋은 작가를 쓸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저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찾아냈는데 평당해 봐야 1,000만원입니다, 부가세 빼버리면.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은 자꾸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은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중에서 제작비가 베타캠 50개라든지 VHS 133개, 베타캠 50개 그 편집하려면 고속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한 편씩 해서 50개를 해야 돼요. 20분이면 1,000분을 녹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질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편집기 안에 들어 있는 릴이 있어요. 그것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500시간입니다. 500시간인데 그것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질 좋게 하려면 그것을 새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제작비는 주고 나중에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실에, 지금 경영기획실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편당 1,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올렸고, 그런데 예산실에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인터넷방송이나, 예산실에서 저희가 꼭 올해 필요한 사업의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 정도는 현실화가 되어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작년에 지적되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일례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제작된 것 중에 어느 부서에서 관광지도를 만듭니다. 지도를 만드는데 그냥 평면적인 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해외 나가보시면 안내지도가 다 일러스트레이트로, CD에 들어 있기 때문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냐고 했더니 일러스트레이트 제작하는 곳이 제작할 때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것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놔줍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베이스 맵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관광지도를 만들 때 조금만 수정하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夫斗完 委員 그것이 필요해요.

○弘報企劃官 姜升圭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해 주면 저희들은, 차후에는 세금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너무 부족해서, 방송국에서 저희들 일할 때는 타이틀 한 번 만드는데도 3,000만원 들여서 타이틀을 만드는데 여기 타이틀도 보면 정말 서울시가 천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예산, 교육청까지 해서 18조원 가까이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너무, 제주도 북제주군 홍보물보다도 적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弘報企劃官 姜升圭 저희가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개선되기는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상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夫斗完 委員 올해는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전서울, 이 책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다고 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무게도 나가요. 이런 것은 가벼우면서 효율적인 것으로 짚으면 좋겠어요. 특히 4페이지, 12페이지, 18페이지 같은 것은 그 내용보다는 다른 것을 삽입시켜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를 2,000권, 그 다음에 테이프가 1,000개, 솔직히 서울시내 맹인 3,000명이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주소부터 전화번호까지 다 파악될 수 있어요. 한번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하셔서 진짜 점자가 필요하냐, 테이프가 필요하냐,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필요한 것을 그분들에게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효율적이지 이것을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 부 했다 몇 부 했다 이러지 마시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랑, 25개 구청에 5만 5,000부면 제가 보기에 적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시정홍보방향은 서울시를 세계 일류도시로 지향하기 위한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보고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반드시 올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星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代辯人所管業務報告

○委員長 金基星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순직 대변인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辯人 金淳直 안녕하세요? 대변인 김순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대변인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정주요시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1월10일 종전의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 운영토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변인을 부족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추진현황을 정례브리핑,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정관련 사회적 이슈의 발생이나 부정확한 기사보도시에는 대변인의 적극 해명을 통해서 시정관련 여론을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주도해 형성해 나가는 등의 대변인실의 주요기능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모든 직원은 이러한 대변인 소관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 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배석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최임광, 공보행정팀장 오승환, 홍보기획팀장 이영기, 공보협력팀장 이승균)

이상으로 대변인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대변인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네, 김순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대변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특히 서울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홍보라든지 자료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사전에, 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꼭 알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대변인이 우리 문화교육

위원회 소속인 만큼 사전에 문화교육위원들이 알고 있을 만한 것 특별한 대외비 외에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代辯人 金淳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다음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

○金興植 委員 김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르기를 대변인이라고 부릅니까?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앉아서 하게 돼 있어요,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代辯人 金淳直 죄송합니다.

○金興植 委員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답변해야지 위원장도 서서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이 앉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정식으로 서서 받아요.

지금 정원면에서 1명이 기능직이 플러스 돼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

어요?

○代辯人 金淳直 기능직 한 사람 정원 초과돼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金興植 委員 한 사람이 오버돼 있는데.

○代辯人 金淳直 인건비에 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총괄적으로 정원정책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은 어디에서 근무하든 간에 문제 없습니다.

○金興植 委員 나가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한 사람이 많죠, 현재 직제상으로?

많으면 다른 데가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도 잡고 정원도 잡는데 정원에 오버됐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고 9페이지에 정례브리핑 실시라고 했는데 물론 시책사업발표를 시장, 부시장 등, 그것을 계속해 왔습니까? 주 1회라고 돼 있는데 브리핑실시 그것을 계속해 왔어요?

○代辯人 金淳直 종전까지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았습시다.

○金興植 委員 현재 대변인이 들어와서 앞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시다.

○金興植 委員 과거에는 놔두고, 과거의 잘못은 다 덮어 놓자 그말인가요?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지원도 의회 공보실과 연계 수시

설명회를 갖는다, 간담회 개최 등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취임해서 상당히 언론에 어떤 지적 하나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언론에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라도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실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되잖아요.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 많은 언론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代辯人 金淳直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金興植 委員 제가 말을 자꾸 막아서 안 됐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하면 과거까지 책임을 맡은 거예요. 현재 내가 현직에 온 지가 오늘 됐더라도, 이 시간이 됐더라도 과거 모든 문제를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대책이 세워져야지 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잘 모른다는 그런 식 답변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代辯人 金淳直 그런 뜻은 아닙니다.

○金興植 委員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많은 언론에 나왔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代辯人 金淳直 알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실례를 들어서 여러 건이 있지만 한 가지라도 들어서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을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代辯人 金淳直 지난 해 연말 경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과 관련한 정확하지 못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관련된 자료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계레신문에서 과거의 고건 시장이 추진해 오던 뚝섬공원조성사업이나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이 새로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요청을 해서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잘 처리돼 가고 있습니까?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사실은 언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회도 중요하잖아요, 따져보면. 그런데 언론에 앞서서 시장을 평가하고 또 시장 때리기 작전한다는 것은 저희들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기자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代辯人 金淳直 기자출신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관련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代辯人 金淳直 그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기자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시의 공보관 또는 우리 대변인실에 들어와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과거에 있었습니다.

○金興植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기자실도 근무하고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代辯人 金淳直 물론 장단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저희 대변인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장기간 근무해서 기자들과의 협조문제라든가 다른 언론에 대한 이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興植 委員 물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오보도도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가 나간 그것을 다음에는 해명을 해 봐도 5명이라면 두 사람은 인정을 해도 세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나갈 때부터 오보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철저히 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홍보차원에서라도, 물론 다 홍보담당관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비서실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李致和 委員 이치화 위원입니다.

9쪽 4번에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지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代辯人 金淳直 최근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간사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분이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면서 기고문을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임시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의논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자실에 설명을 하고 또 취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李致和 委員 왜냐 하면 본위원이 사실은 언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代辯人 金淳直 만약 이 위원님께서 언론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李致和 委員 왜냐 하면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삭감 건이 있었어요. 5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었고 계수조정위원으로 있었는데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代辯人 金淳直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致和 委員 여하튼 삭감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이 뽑아준 이런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도 의원들의 고유권한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삭감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李致和 委員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니까 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 지원하고 여러 가지 죽 써놓으셔서, 거창하게 써놓으셔서 도 대체 이런 경우 나같이 언론의 피해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서울시에 관계되는 시정신문이나 또 시민일보인가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문들, 사실 지역구 신문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계도지 지원비용이 나가나요?

○代辯人 金淳直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李致和 委員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모 구청에서는 계도지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몇 억대가 나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분명히 돈을 구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계도지 비용으로 돌려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눈으로 보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문 활자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 더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에 그야말로 케이블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代辯人 金淳直 저희 시로서도 공중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에 대해서도 시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케이블TV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대변인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致和 委員 고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夫斗完 委員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소속되어 있다가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하나의 큰 장점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든 시정상황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분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시정발표라든지 시정흐름을 읽어내는 데는 아주 합당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쪽으로 단점은 언론대처능력이 대변인실에서 기자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많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가관이 매체가 중앙지만 하더라도 워낙 매

체가 많은 편인데 거기에 공중파까지, 케이블까지 해서 많은데 요즘 계속 오보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 임대아파트 건도 잘못 나가고, 그것은 뭐냐면 대변인실이 있는데 일부 국장들의, 서울시가 발표해야 될 것을 모두 취합해서 대변인실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代辯人 金淳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업무특성상 다른 조직하고 같이 정보가 생산되는 곳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그것이 또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발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래서 대변인실을 만들어놨는데 취합을 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들어가면 엉뚱한 것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원한테 여쭙봤을 때하고 전혀 엉뚱한 기사가 나와요. 뭐냐면 가판에서만 딱 잘라놓으면 가판에서 이것이 정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가판대처능력이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신문이 가정판까지 배달됐다는 것은 뭐니까?

○代辯人 金淳直 그것은 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죠.

○夫斗完 委員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이 마지막 52판인가요 그 정도 들어오는데, 한 8판까지 가판에 나오나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수두룩

해요.

○代辯人 金淳直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느끼고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꼭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리고 매체에 나올 때는 공중파매체라든지 케이블매체에 나왔을 때는 그것도 너무 부족하고 말이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또 서울시의원들의 잘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매일 접촉해서 그런지 안 좋은 것은 많이 잘라버리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代辯人 金淳直 저희 대변인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夫斗完 委員 대변인실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代辯人 金淳直 과거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夫斗完 委員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물론 우리 공보실도 있지만 거기하고 연결을 잘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안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장 얘기하는 것, 시장행동, 시책발표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정말 쓴 소리, 시의원들이 내뱉은 것은 너무 인색하게 언론상대를 해 준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시의원들도 좋은 쪽으로, 그분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代辯人 金淳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金明淑 委員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대변인 1관 4팀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행정·기획·지원·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사해요. 공보지원팀하고 공보협력팀이 상당히 유사한데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팀만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통합해서 공보지원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홍보기획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모바일 동영상 공보사항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해질 텐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모바일지원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하면서 동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에 시정을 대변할 그런 모바일홍보팀 이런 것이 대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代辯人 金淳直 김위원님 충고말씀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팀을 편성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운영해 보고 김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보협

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다음 직제개편 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리고 정례 기자간담회가 주 2·3회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시민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代辯人 金淳直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요, 시민단체가 별도로 저희 기자실에 와서 기자간담회나 또는 기자설명회를 가지겠다고 하면 장소를 준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시민단체 참여를 적극 홍보해서 차라리 같이 참여케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정례 기자간담회 수를 줄이면서 시민단체나 어떤 모여진 기회에 브리핑 기능을 강화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대변인제라고 지금 그런 것 있습니까? 시민대변인제는 없죠?

○代辯人 金淳直 시민대변인제라고는 없습니다.

○金明淑 委員 일반시민들 중에서 행정사항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정하게 원고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미하면 좀더 관심을 제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代辯人 金淳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상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리고 청와대도 각 기구가 축소되고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마당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이렇게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듯한 어떤 제왕적 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시각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언론에 시장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환에 불응하시고 차일피일 넘기고 계시는데 좋은 것만 홍보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변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변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代辯人 金淳直 지난 1월 26일 1차 심리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서 시장께서 공판에 나가셨느냐 안 나가셨느냐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때 기자실에 내려가서 시장의 공판참석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2차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제가 기자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는데 2월 6일 공판은 법원의 인사 때문에 그것이 다시 기일이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선거법 관련해서도 대변인실에서는 그 일정이라든가 그 추이를 살피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래서 항간에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명색이 지방의원들은 사실 명함 하나만 잘못 돼도, 몇 번씩 저도 불러다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대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마당에 이런 부분이 일면 어떤 부정적 요소로 작용이 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계속 자꾸 불응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지 않게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명쾌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代辯人 金淳直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崔桂洛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金貴煥 委員 사실 질의 안하려다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10분만 합시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변인을 좀더 잘해 달라는 격려차원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代辯人 金淳直 네, 알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사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하면 될 줄 알았더니 추후에 7·8번을 또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누군가 옛 성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못된 그런 오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변인을 하실 적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인 것만 정확하게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 대변인과 저희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알아되어야 될 상식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서로가 서울시 의정활동과 서울시에서 대변인하고 상부상조의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변인과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로가 견제하고 힐책하는 상하관계가 되지 말고 서로가 협조하고 상담하는 상부상조의 서울시 대변인과 우리 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대변인 되시는 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죠?

○代辯人 金淳直 그렇습니다.

○金貴煥 委員 마치겠습니다.

○代辯人 金淳直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공보업무 운영방향이 서울시 역동적 이미지

부각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대변인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2시에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2시까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직접 개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의회 공보실 동영상 사진촬영의 계획이 잡혀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金基星 崔桂洛 俞仙穆 金貴煥
金明淑 金雲基 夫斗完 徐鍾和
李康一 李致和 林承業 鄭淵熙
金興植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弘報企劃官 姜升圭
代辯人 金淳直